

건강·인권 강조 '학습 규제'... 똑 똑 떨어지는 성적

못된 '동네 선배'

후배들 폭행... 흠친 돈 가로채고 누명까지 씌워

되돌아본 2013 ① 광주 실력저하 '비상'

전국 1위를 거머쥐었던 '실력 광주'의 위상 추락, 일본 원전 발(發) 먹거리 파동, 가난과 취업난에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의 잇단 자살, 미세먼지 공습... 다사다난했던 2013년 광주·전남의 사회 현상을 되돌아 본다.

'실력 광주'의 위상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줄곧 전국 1위의 자리를 지켰던 광주지역 고교 학력이 최근 2년 사이에 중위권으로 곤두박질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2 학생들의 '보통학력 이상'은 국어 89.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위, 영어는 90.4%로 6위, 수학은 90.1%로 7위를 기록했다.

해 '실력 광주'를 입증했던 광주의 학력은 지난해 국어 2위, 영어 4위, 수학 7위로 곤두박질했다가 올해 1~2계단 더 추락, 최상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주저앉았다. 평가에 응시한 고2는 내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러야 하는 예비수험생이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학력 하락의 주범은 공립 고등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은 상위 30위권에서 3개 학교만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5개에서 2곳이 밀려났다.

국·공립 성적 추락... 전국 최상위서 중위권으로

학부모들 "학생들 미래 걸린 학력향상 외면 안돼"

특수목적고인 광주과학고와 자율형공립고인 상일여고를 제외하면 사실상 문영여고 1곳뿐이다.

반면, 최하위권에는 국·공립이 몰려 있다. 30위권 밖에는 특수자·기타 학교를 제외하면 사립고는 4곳이고, 나머지 14곳이 국·공립이다.

이 같은 '공저사고(公低私高)' 현상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지난달 수능 언어·수학·외국어 영역의 등급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48개 일반고의 1~2등급 상위 20개

고교에 국·공립은 1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전남대 진학이 가능한 3등급에도 공립은 전무했다.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력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 중3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국어 85%, 영어 75.4%, 수학 67.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과목 모두 10위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교장들은 학력저하가 현실에서 가장 기본적인 학력향상을 실현된 만큼 학력향상을 위해 광주 시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제도 수정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 건강권과 인권 존중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규제해온 학습 환경을 완화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방과 후 자율 학습·심화학습·보충학습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A고 교장은 "교육청의 학습시간 규제로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절대학습량이 크게 줄었고, 이게 실력저하로 이어졌다"며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만큼 교사들이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들의 장래가 학력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에서 가장 기본적인 학력향상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백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에 사는 J(18·광주 모 중학교 중퇴)군은 지난해 10월 초 밤 9시께 복구 우산동 M편의점 앞길에서 만난 후배 K(17)군에게 휴대전화를 훔쳐오도록 했다.

J군은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이른바 '짱'으로 불리며 동네 후배 8명을 심복 다루듯 다녔다. J군은 평소에도 길을 가다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거나 아는 척을 하지 않는 후배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훔친 물건을 팔아 번 돈을 '상납' 받아왔다.

J군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던 K군은 때마침 지난해 L(16)양에게 접근, "휴대전화 좀 빌려 쓰자"며, 전화를 건네받아 그대로 달아났다. J군은 범행 뒤 K군에게 훔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곧바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린 뒤 판매 대금을 받아 가로챘다. 판매 대금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도 후배들에게 만들도록 해 계좌주적을 피했고 경찰에 붙잡히더라도 후배들에게 단독범행으로 진술토록 강요했다.

J군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 등으로 가로챈 것만 24에 걸쳐 630만 원이다. 하지만 K군의 친동생까지 범행에 가담시키려한다. 범행에 대한 억울함을 갖고 있던 K군의 자백에 J군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동부경찰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중인 J군을 이번 사건과 관련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고유가에 화목보일러 인기 연통과열 화재피해도 급증

뿔감 무단 벌목까지

고유가 행진으로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크게 는 가운데 화목 난로와 화목 보일러가 인기를 끌면서 화재와 뿔감용 무단 벌목이 기승을 부리는 등 부작용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 속에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화목 난로 및 보일러 사용 가구가 해마다 10~20%씩 늘고 있다.

이는 기름보일러·도시가스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화목 보일러 뿔감인 참나무 1t당(3개월 사용분량) 가격은 45만 원선으로, 기름보일러 석 달 연료비(등유 200ℓ 짜리 기준) 90만 원 보다 절반 가량 싸다. 하지만, 화목 보일러 사용 부주의

에 따른 화재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전 6시10분께 목포시 해안동 한 상가 밀집지역에서 불이 13채를 태우고 소방서출산 2억80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꺼졌다.

이날 불은 상가의 한 식당에서 사용 중인 화목 보일러 연통이 과열되면서 시작했다. 앞서 지난 1월 16일 오전 10시20분께 순천시 덕동동 이모(여·44)씨의 집에서 이씨와 딸(10) 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모녀가 밤새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다 연통에서 새어나온 연기에 질식사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무단 벌목도 잇따르고 있다. 영암군은 이날 영암군 서호면 은적산 등

산로와 임도 주변에 심어진 지름 30cm의 참나무 10그루가 누군가에 의해 무단 벌목된 것을 확인했다.

군은 화목 보일러 뿔감인 참나무만 벌목된 점으로 미뤄 누군가가 화목 보일러에 사용할 뿔감을 구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무단 산림훼손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산림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가정 내 화재안전사고 원인품목을 조사한 결과, 모두 2241건 중 413건(18.4%)이 전기장판·매트였다. 이어 ▲세탁기 150건(6.7%) ▲화목 보일러 134건(6.0%) ▲냉장고 88건(3.9%) 등의 순이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화목난로 불티나오"

15일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한 화목난로 판매점을 찾은 손님이 주인의 설명을 들으며 난로를 살펴보고 있다. 화목난로는 가격이 저렴해 판매량이 늘고 있다.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靑 조오염 행정관 구속여부 내일 결정

채동욱 관련 정보 유출

영장실질심사 열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염(54) 행정관과 서울 서

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된다.

1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가 지난 13일 청구한 조 행정관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부장판사의 심리

로 진행된다.

조 행정관은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채군 가족관계등록부 불법 조회·열람을 조 국장에게 부탁하고 조 국장은 이를 실행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조 국장이 조 행정관의 요청으로 채군의 가족부를 불법 열람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환스

'장성택 동영상' 클릭 했다면 25만원 결제된다

신종 스미싱 피해 조심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장 부위원장 처형 동영상을 미끼로 한 신종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나돌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장성택의 처형 동영상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가 단축인터넷주소와 함

께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해당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바로 25만원이 결제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유도하거나 개인·금융정보 탈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환스

술집女 무관심에... 맥주 2박스 병뚜껑 따고 핸드폰 훔친 심술몹



○~15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오모(26)씨는 지난 2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A주점에서 카운터 옆에 쌓아 놓은 2박스(60병·36만

원 상당) 분량 맥주병의 뚜껑을 따고 주방에 있던 종업원 차모(여·22)씨의 핸드폰(시가 80만원 상당)을 훔쳐다는 것.

○~오씨는 경찰에서 "바에서 술을 마시는데 여종업원이 다른 사람에게만 말을 걸고 나에게만 신경을 안 써 화가 났었다"며 선처를 호소.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해남망갈호텔

일출과 일몰, 그리고 다도해가 어우러지는 곳- 바다 위의 휴식처 해남망갈호텔

하늘과 맞닿을 듯한 위치에 자리 잡은 해남망갈호텔은 우형리 공룡박물관, 이순신 평양대첩, 송호해수욕장, 망골관광단지, 보길도, 달마산, 두륜산도립공원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휴식공간입니다.

536-924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227-1
Tel. 061-530-8000 Fax. 061-530-8003

그 곳에 가면 **영산재·오동재**가 있다.

한옥호텔 영산재와 오동재의 대청마루에 앉아 차시이로 열린 하늘을 바라보자면 차마 끝에 매달린 내 시를 한 조각 바람 되어 멀리 날린다. 긴 세월 영산재와 오동재를 휘돌아 오는 청아한 바람은 마음더운 전설이 되어 코골을 소치고 유달신과 영위신에서 흘러져 나오는 맑은 정기는 애마른 나의 영혼을 적시어 새 희망을 잉태시킨다.

영산재: 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292 ■ 예약 및 전화문의, 061460-0300
오동재: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394-5 ■ 예약 및 전화문의, 061660-1000